



Press Release No. 11/238  
FOR IMMEDIATE RELEASE  
2011년 6월 17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2011년 제 4 합의사항 상담 한국 사절단  
(2011 Article IV Consultation Mission) 임무 종결에 즈음한 성명**

하기 성명은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사절단의 2011 제 4 합의사항 상담이 종결된 후 오늘 서울에서 발표되었다.

수비르 랄 (Subir Lall) 씨가 이끄는 IMF 사절단은 2011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한국 당국 및 여타 주요 상대들과 한국의 최근 경제발전 상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사절단은 생산적이고 개방적으로 상담에 참여해 준 상대 한국 인사들에 감사한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활발하고 독자적 확장세로 전환되었다. 경제의 근저 잠재력을 넘어 2011년 성장률은 4.4%로 예측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4.2%로 완화될 것이다. 최근 경제활동의 약세는 2011년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근저 성장동력이 재현되고 수출과 국내수요가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생산능력이 더 발휘되고 기업이 왕성한 자신감을 보여 하반기에 수출과 함께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이 더 늘어나고 식품 및 연료비가 안정됨에 따라 가계소득이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조에 대한 단기적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리스크는 주로 유럽의 재정 불안, 선진국의 대외 수요 감소, 혹은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악화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전망에 기인한다. 주요 국내 리스크는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약세와 소비재에 대한 예상 밖으로 높은 인플레이에 기인한다. 한국의 다변화된 수출을 감안할 때 이들 리스크는 개도국들의 성장 강화에 따른 유리한 리스크로 상쇄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강력한 성장활력에 비추어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의 초점이 인플레이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증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은 적절하다. 지금까지 재정적 경기부양과 통화정책 금리 인상을 시의 적절하게 중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극적인 실질금리와 (IMF 조사에 근거한) 펀더멘탈에 비해 저평가된 환율 및 통화관련 상황은 이 경기 단계에서 느슨하게 남아있다. 연착륙을 보장하려면 더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환율의 신축성도 인플레이 대응의 필수 요소이다. 금년에 실시된 행정적 물가 안정 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더 장기적으로는 근거의 총수요 압력을 완화하거나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상업은행 체제는 건전하고, 높은 유동성과 자본화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MSB)들의 별개 문제점들은 나머지 금융 체계에 구조적 리스크를 던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저축은행 약점 치유 계획은 환영 받을 만하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인상적인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탄력을 보장하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 우선순위로 남아있다. 이 목표 달성을 향한 한가지 필수적 조치는 이미 강력한 정책의 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입안에 있어 금융부문과 경제 사이의 연계와 거시경제 및 거시건전정책(MaPP)들을 더 긴밀하게 내부 조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전반적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고 목표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를 체계적인 금융안정 고려사항들에 더 순응하게 하면 레버리지의 증대를 막고 실질경제에 대한 금융 충격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금융안정 지표를 감시하고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지게 하는 우대조치들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금리 조정 정책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거시경제 정책 조치들만으로는 금융안정의 우려사항들을 모두 없앨 수는 없음을 인정한다면 거시건전성 정책(MaPP)이 필요한 정책 도구 요소이다. 예를 들어 불안한 자본 흐름이나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MaPP는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배경으로 뒷받침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본 흐름의 불안이 한국의 타당한 우려라면 자본 흐름 대책들은 더 쌍방향적인 환율의 신축성이 동반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주택정책은 과도한 레버리지의 증대를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MaPP의 시행은 또 규제범위 밖에 있는 활동들을 전환시키기 위해 우대 금융정책 조치들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오래된 재정 건전성 유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2013-14 년도에 (사회보장을 제외한) 균형 예산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 이 강화 정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대책 사항들은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끝으로, 증대되는 수출의존도와 외부 충격에 대한 관련 취약성, 그리고 증가되는 사회 불평등에 비추어, 비교역 부문은 제 2의 성장동력으로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쌍방향적인 환율의 신축성 유지는 비교역 부문을 활성화하고 동 부문을

위한 가계소득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교역 부문을 더 큰 경쟁에 개방하고 제조부문에 주어진 특혜조치를 제거함으로써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역 부문에서 늘어나는 취업기회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공 서열에서 실적위주 임금제로의 전환은 노년층을 위한 공식고용을 지속되게 만들어 늘어나는 연금 대체율과 함께 노년층 빈곤을 줄일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 비율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들 분야에서 경주되는 최근의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